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아이너스기술 개발연구소팀

아이너스인들의 .. 이구동성,.. .. 개발팀은 .. 외계인.. 이다!...

훈

자 길을 걷다가도 공시령 공시령 얘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숫자를 되뇌는 사람을 만
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그들
의 정신세계를 의심하는 말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현대 역삼동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모여있다. ‘아이너스기술’의 개발연구소팀원들이 전부 그렇다. 회사의 다

른 부서 직원조차도 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서슴지 않는다니...

개발팀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3차원 스캐닝기술과 리버스 모델링 솔루션이라는 첨단병기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세계를 호령하는 점령군! 외계인이라는 말이 딱히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이너스에 외계인이 있었기에 2004년 과기부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고 흥부팀 직원은 귀뜸한다. 영예의 개발팀을 만나 영광된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감했다. 서너명의 팀원이면 족했지만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 나왔고, 그
렇게 모인 인원만도 대략 십 여명. 사진 몇 컷으로 그들의 심사를 진정시키고 정예요원만을 다시 선
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일정보다 긴 인터뷰를 했지만, 그들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몇마디 말
을 던지고는 다시 긴 침묵을 지키곤 했다. 이동훈 이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다들 공대출신이라서 그래요. 30년 정도 이 땅의 ‘남자’로 제대로 산 사람들이죠. **무뚝뚝해 보이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가슴이 따뜻한 외계인들**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팀의 시작’을 다함께 따라가 보자. (좌하부터)



▲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아이너스 '14인의 외계전사'

팀장님 끝인가요? (응)
개인적으로 병역특례를 마치고
올해 드디어 예비군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으로의 시작. 아~ 상큼합니다.
이제 군바리라고 놀리시기 없겠습니까?
다들 올해도 작년처럼
파이팅 하자구요! - 강동화

이쁜 짓을 해야 예뻐하지. 뭐, 올해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 개발팀 다들 건강했으면 하는 것뿐
이지. 뭐 한가지 더 바랄 수 있다면
10kg감량 정도? 조팀장 자네는 어때?
올해는 운전면허증 좀 따지? - 이동훈 이사

시간이 있어야 따쥬. 시간이, 시간부터 좀 주십시오.
시작이요? 음... 시작은 반이쥬. - 조성욱 팀장

ㅎㅎ 맞아맞아, 저는 작년 이맘때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딱 1년쯤 되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선배님들 올해도 작년처럼 많이
예뻐해주실거죠? - 김영관

우리 팀원을 새해도 왔는데 다들 선 좀 보세요. 어서 여자친구들
만나서 저처럼 아침형 인간으로 사시란 말입니다.
개발팀은 왜 다들 저녁형 인간이어야 하나고요~ - 양창윤



전

산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디자인이 좋아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시드'를 누구보다 감명 깊게 보았다는 사람. 그 사람은 플래시를 통해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클릭하고 있는 '아이파트너즈'의 조영규 과장이다. 아이파트너즈는 웹사이트의 기획 및 디자인 전문 웹 에이전시로 조과장은 여기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디자인은 바로 '만화처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무엇'. 그래서 대중들과 늘 소통하고 싶고, 재미를 주고 싶다고, 그런 그가 몇 해 전부터 코스프레 사진찍기에 푹 빠져버렸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프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실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장과 소품이 정말 화려하죠. 모델분들은 만화 속 캐릭터의 표정까지도 재현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고나 할까요."

말처럼 그간 디자인 작업을 해오며 비주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누구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런 관심은 자연스레 사진기를 잡게 했고, 사진 중에서도 인물사진에 심취하기 시작하였다. 직장동료에서 일가친척까지의 표정을 사진기에 담으며 더 이상 마땅한 모델을 찾기 힘들어졌을 때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처음 알았을 때,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 그 세상이 제 눈 앞에 펼쳐지니 가슴이 떨리더군요. 변태라고요? 저 변태 절대 아닙니다."

모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모델이 할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조영규씨는 '절대 NO'란다. 모델보다도 자신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지금은 당연히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다음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한번 해볼려구요. 상상까지 찍어주는 행복한 사진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저 변태아니죠?"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중이시거나, 통통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김지원(✉zmail@empal.com, 02-515-3681)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아이파트너즈 조영규 과장

상상을.. 찍어주는..
.. 행복한.. 사진사..